

전남도, 5월 신록 가득한 전남 숲길에서 힐링하세요

담양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구례수목원 등 4곳 추천

전라남도가 신록이 짙어지는 계절을 맞아 자연의 싱그러움과 치유의 시간을 만끽할 걷기 좋은 숲길 4곳을 5월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담양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은 1972년 조성돼 50년이 지난 지금 8.5km 길이의 도로 양쪽에 높이가 20m에 이르는 아름드리나무 2천여 그루로 초록빛 동굴을 만든다. 5월에는 신록이 절정을 이룬 산책로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고 도보 여행자에게도 사진 촬영 명소로 항상 인기가 많다. 주변에는 작은 미술관과 카페, 자전거 대여소 등이 있다.

구례수목원은 전남도 제1호 공립수목원으로 다양한 봄꽃과 수목이 어우러진 진달래원, 봄향기원, 그늘정원 등 13개 정원과 온실, 중자학습관으로 조성됐다.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꽃과 나무로 조성된 주제별 산책로를 걸으며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숲속 자연물을 활용한 개구리알 관찰하기, 나뭇잎 배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초·중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화순 무등산편백자연휴양림은 40년생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울창하게 숲을 이루는 곳으로 넓은 대지에서 뿜어내는 싱그러움 피톤치드를 마시며 일상의 피로를 날려보낼 수 있다.

통나무집, 썰매장, 물놀이터 등 가족 모임과 학교, 회사 등 각종 단체의 연수, 세미나, 수련회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숙박 예약은 산림청 통합예약사이트 숲나들e에서 가능하다.

장성 치유의 숲은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축령산에 독립운동가 임종국 선생이 20여 년간 가꾸 숲을 완성했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조림지로 손꼽힌다.

산책로 '치유의 숲길'은 경사가 완만해



쉽게 숲을 둘러볼 수 있다. 숲내음 숲길, 산소 숲길, 건강 숲길 등 테마별 숲길이 6개 코스로 조성됐다. 또한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립장성숲체원에서 편백 팔찌만들기, 노르딕워킹, 숲속 요가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의 숲길은 울창한 나무와 꽃이 어우러져 걷기만 해도 눈과 마음이 힐링된다"며 "전남의 걷기 좋은 숲길에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면서 5월의 신록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전문훈련사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 교육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의 과도한 짖음, 분리불안, 공격성 등으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문제행동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광주시,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정교육' 첫 시행

전문훈련사가 과도한 짖음·분리불안·공격성 등 맞춤교정 지원

교육은 광주 5개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춰 각각 추진하며, 시민 편의를 고려해 집합교육 또는 1대 1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한다.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반려

동물 전문훈련사가 직접 참여해 반려인의 올바른 양육법, 반려동물 사회화 방법, 문제행동 교정 등을 지도한다. 특히 1대1 교육은 반려동물의 성격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과 훈련으로 진행돼 실질

적인 행동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시에 거주하며 반려동물 문제행동으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생활밀착형 동물복지 정책을 지속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일 기자

광주 남구, '목돈 모으는 청년내일저축' 호응

3년 정책형 적금... 월 10만원 적립하면 만기때 1,440만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 직장인 청년들 사이에서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이 매년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 신규 가입자 모집이 오는 21일까지 진행 중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형 적금 제도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이나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저축인 만큼 연령과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 가구 소득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만 가입할 수 있다.

일반 근로 청년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까지 가능하다.

소득 기준으로는 일반 청년은 월 50만원~250만원 이하이며, 수급자 등 취약계층 청년은 월 10만원 이상 소득만 발생해도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을 포함한 전체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은 기존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에 3년간 최대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국가에서 매월 30만원씩 3년간 1,080만원을 지원금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꾸준히 적금만 넣기만 하면 본인 납부액 360만원에 국가 지원금 1,080만원을 더해 목돈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차등 지원한다.

한편 청년내일저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복지포(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임채일 기자

충 청년은 월 10만원 이상 소득만 발생해도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을 포함한 전체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은 기존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에 3년간 최대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국가에서 매월 30만원씩 3년간 1,080만원을 지원금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꾸준히 적금만 넣기만 하면 본인 납부액 360만원에 국가 지원금 1,080만원을 더해 목돈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차등 지원한다.

한편 청년내일저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복지포(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임채일 기자

서구, '착한가게·착한쿠폰'으로 나눔·소비 선순환

기부문화 확산·골목상권 활성화... 올해 3억원 상당 나눔 실천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나눔과 소비를 연결하는 대표 복지정책인 '착한가게·착한쿠폰' 사업을 통해 총 3억원 규모의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 기부문화 확산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고 있다.

'착한가게·착한쿠폰'사업은 매월 일정 금액(3만원 이상)을 정기 기부하는 지역 자영업체 '착한가게'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돌봄이웃 1인당 1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서구만의 선순환형 복지 모델이다. 지급된 쿠폰은 관내 437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후원금이 다시 지역 소상공인에게 환원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지난해 서구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2500명의 돌봄이웃에게 착한쿠폰을 지급했고 올해는 수혜 대상 3000명으로 확대해 3억원 규모의 나눔을 실천 중이다. 쿠폰은 모바일 문자(MMS) 형태로 발송되며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마트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참여 기반인 '착한가게'는 지난 4월 말 기준 총 1245곳이 등록돼 있으며 이 중 35%(437개)가 착한쿠폰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일정 횟수 이상 기부를 지속한 가게에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착한가게' 현판을 부여하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돼 100%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착한쿠폰은 기부자와 수혜자,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구조로 지역경제와 복지를 함께 살리는 착한도시 서구의 대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나눔이 일상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함께 참여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로 발송되며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마트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참여 기반인 '착한가게'는 지난 4월 말 기준 총 1245곳이 등록돼 있으며 이 중 35%(437개)가 착한쿠폰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일정 횟수 이상 기부를 지속한 가게에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착한가게' 현판을 부여하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돼 100%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착한쿠폰은 기부자와 수혜자,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구조로 지역경제와 복지를 함께 살리는 착한도시 서구의 대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나눔이 일상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함께 참여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청년들의 일상에 활력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구, 지역 청년 대상, 26일~6월 22일까지 베이킹·도예 등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청년 1인 가구를 포함한 지역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다양한 생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공방과 청년 창업자들이 협력해 이달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초코구겔호프 베이킹 ▲향수&핸드크림 만들기 ▲도예 체험 ▲터프팅 미니러그 제작 ▲썬케처 만들기 ▲라탄스탠드 제작 ▲테라리움 무드등 만들기 등 총 7개다.

참여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거나 동구에 직장·학교가 있는 만 19세~39세 청년으로, 1인 가구 청년에게는 우선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이며,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선착순 마감된다.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 등은 동구청 누리집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실용적인 기술을 익히며 자기개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북구, '오월' 기억하는 '특색사업' 펼친다

'오월의 외침, 이어지는 메아리' 주제로 6개 사업 추진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 청년간 부회와 오월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특색사업을 펼친다.

8일 북구에 따르면 제31기 청년간 부회의 주관으로 5·18 민주화 운동 제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월의 외침, 이어지는 메아리'라는 주제로 6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45년 전 광주를 기억하고 뜻을 기리고자 마련됐으며 ▲5·18 통화연결음 송출 ▲현혈캠페인 및 현혈증기부 ▲5·18 민주묘지 참배 ▲주먹밥 DAY 운영 ▲오디오 방송 리마인드 5.18.Hz ▲5·18 사적지 도보순례 및 증진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이달 말까지 구청과 통화 연결 시 5·18 안내 음성을 송출하고 현혈캠페인 및 현혈증 기부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1980년 광주의 송고한 정신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오는 9일에는 청년간부회의 및 신규 임용 공직자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 방문 및 참배하고 묘비 뒤통, 손때극기 꽃기 등의 활동을 통해 민주

영령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16일에는 북구청 구내식당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과 협업해 주먹밥을 만들고 나누는 '주먹밥 DAY'를 운영하여 5·18 당시 시민들이 함께 나눴던 주먹밥의 의미를 상기하고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기념일에 하루 앞선 17일에는 북구 소재 5·18 사적지 4개소(전남대학교 정문, 광주역 광장, 무등경기장 정문, 광주교도소) 일대를 도보 순례하며 환경정비를 하는 줍깅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오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18분에 구청 청사 내 5·18 관련 내용의 오디오 방송을 송출하여 45년 전 광주의 상황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오디오 리마인드 5.18.Hz'도 추진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45년 전 5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민주 영령들의 존엄한 정신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